

## 교회 목표

신앙한 예배  
천국일꾼 양성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  
이웃 사랑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17

## 주간충현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24

대한예수교 감리회 총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진홍용 편집: 양재용

#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의 증인 오늘은 선교주일

## 생명의 말씀(금요찬양집화) 신약에 비추인 빛

죄악의 본질과 또 그 범위를 우리에게 보여 주는 것은 구약이다. 또한 이 세상은 우리 자신의 죄와 다른 사람들의 죄의 영향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인간의 삶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구약은 우리에게 보여 준다. 신약은 어떠한가? 신약은 이 문제를 향한 하나님의 크고 궁극적인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께 있음을 보여 준다(행 4:10-12). 구약에서의 하나님은 이미 인류의 역사 속에 계속적인 구속의 행위를 통하여 이 큰 문제의 해답을 보여주기 시작하셨다. 그 중에 출애굽이 가장 좋은 모델이다. 출애굽은 실존적인 구속이다(시 78:12-16). 그렇다면 신약에 나타난 복음은 얼마나 큰 것일까? 구약의 기초보다도 좁거나 또는 모자라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의 하나님과 신약의 하나님은 같은 분이시며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렘 2:2-6).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셨고, 십자가를 통하여서는 나를 죄의 사슬에서 풀어주셨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십자가를 통하여 절정에 이르렀다. 이것이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 나타내신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초월한다면 우리의 복음이야말로 구약에서 나타났던 출애굽의 모델, 희생 제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시 소생시키시는 용서를 모두 포함하여 말할 것이다. 사실상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들에 대한 우주적인 승리임을 확실히하고 분명하게 주장한다(렘 1:7-10). 이 승리야말로 성경이 말하여 주는 복음의 정수다(고전 15:54-57). 이러한 승리를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다(마 28:18-20). 이는 인간의 삶의 어떠한 부분이 아닌 모든 면을 말한다. 삶 자체인 것이다(고전 4:1). 그러므로 구약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었음을 마음에 둘 때에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요 5:39-40).

먼저 구약에 기록된 이야기들이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지를 생각할 때에 구약을 전체적으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즉 구약의 완전한 성취가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볼 수 있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의 전체적인 범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모든 것을 구약의 역사 속에 나타내시고 선포하셨음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취하신 그 구원의 범위를 더 깊고, 더 넓게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 지금까지는 출애굽에 중점을 두고 생각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원칙은 이스라엘의 전 역사를 통하여 있었던 모든 이야기에 다 적용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저들의 영토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또한 영토를 차지하게 되는 그 이야기를 읽을 때에 그 영토야말로 하나님의 선물이고, 유언인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둘러싸고 형성된 모든 신학과 율법, 조직 윤리 등에 이 원칙을 적용할 수 있다.

선지자들의 메시지를 동반하는 왕국들의 이야기 역시 양방성을 보여 준다. 이제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족보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보다 하여금 이스라엘 민족이 가지고 있는 구약을 예수님의 관계 속에서 보아야 하는 중요성을 제시해 준다. 이 모든 이야기가 예수님 자신의 이야기 안에서 완성되어지는 것을 지적해 준다. 구약과 신약, 이 둘이 함께 인간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눅 24:26-27). 이를 가리켜서 '구원의 역사'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과 신약의 관계를 볼 수 있고 또한 구약과 신약의 기원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학자들은 구약과 신약을 이어주는 내용을 다양하게 설명하지만 그 중에서 중요한 것 하나가 곧 역사다. 마태복음이 시작되는 이 계보가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지적해 준다. 이는 외적인 것, 내적인 내용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아멘.

"절으면서 전하지 않다면 전하기 위해 어디를 간다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말처럼 복음 전파를 너무 복잡하고 거창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자신이 주님께 필요한 사람들을 깨닫지 못하고, 어떤 특별한 선교나 전도 현장에 가길 기다리거나 사역자가 정해지기를 막연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복음 전파를 바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오는 오해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딤후 4:2). 주님께서서는 우리 각자가 처한 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뿜어내기를 기대하십니다.

가장 먼저 우리 가정과 이웃들에게 그리스도의 편지(고후 3:3)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그들에게 복음의 편지를 전할 때 우리는 더 넓은 선교지를 볼 수 있는 영적 시야가 열릴 것입니다(막 16:15).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모두 다, 십자가의 증인입니다. 교회주변 전도가 있을 때에만, 해외 단기교회 때에만 증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선교주일을 맞아 우리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다시는 여호와의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되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풀솜에 사투치니 답답하여 건널 수 없나이다"(렘 20:9).

# ETERNAL LIFE

***(11) And the testimony is this, that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

***(12) He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the life.***

***(13) These things I have written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1 John 5:11~13)***

**W**e are living in two different worlds. One world is passing and the other is eternal. The world that is passing is filled with daily life and death issues. Every few seconds someone is born and someone dies. This passing realm has a lot of hospital and graveyard activity! Most of this world's history is well recorded and analyzed. Historians, philosophers, and medical experts throughout the ages have studied and tried to stop the dying process to no avail. Today's Bible verses clearly solve this problem. They mention God's promise of eternal life.

Why do we need eternal life? Life on earth is short. Moses defined the shortness of life in his prayer, "As for the days of our life, they contain seventy years, or if due to strength, eighty years, yet their pride is but labor and sorrow; for soon it is gone and we fly away" (Ps. 90:10). James, the brother of Jesus, explains, "You are just a vapor that appears for a little while and then vanishes away" (Jam. 4:14). Even with all the new medical technology the experts can delay life a little bit, but they can't solve the problem of death. They can't give anyone eternal life. God's Word says, "And the testimony is this, that God has given us eternal life, and this life is in His Son" (1 Jn. 5:11). The promise of eternal life is a bright light in the dark world. Eternal life says our days here are but a prelude to eternity. This great news helps dry the tears of those who mourn over the loss of a saved loved one. In heaven, you won't find anyone crying. You won't find a hospital or a cemetery in heaven because it is eternally perfect.

How do we get eternal life? We get eternal life by receiving a gift. Many Christians think that eternal life can be earned, but that is just the devil's trick. No one can earn eternal life. God gives eternal life as a gift to whoever believes in His Son. It is a free gift,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6:23). If you accept Jesus Christ, you will receive eternal life. This is the greatest comfort a grieving family can experience over a saved love one. Jesus said, "Peace I leave with you; My peace I give to you; not as the world gives do I give to you.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nor let it be fearful" (Jn. 14:27). Paul testified, "we are of good courage, I say, and prefer rather to be absent from the body and to be at home with the Lord" (2 Cor. 5:8). Have you received this wonderful gift of eternal life?

When does eternal life begin? We get eternal life when we receive Christ as our Savior, "He who has the Son has the life; he who does not have the Son of God does not have the life" (1 Jn. 5:12). Doing a good job on this earth does not get you into heaven! God is very clear on this matter, "He who believes in the Son has eternal life; but he who does not obey the Son will not see life, but the wrath of God abides on Him" (Jn. 3:36). Eternal life becomes a present possession as soon as one believes. Likewise, God's wrath remains on the unbeliever in the present. Do you believe?

My dear friends, too many people don't really believe in Jesus Christ. They try to show others by their own wits that they are great persons, but human greatness can't get you into heaven. Everyone going to heaven must have Jesus Christ as their Savior. No matter how hard anyone tries or how good anyone acts, neither feats offer eternal life. You have to believe in Jesus Christ. As a believer, your present position of eternal life brings peace of mind. It doesn't make a difference whether you are rich and strong or poor and weak, or even if you're not a good person; the only thing that matters is that you believe in Jesus. Jesus said, "Do not let your heart be troubled; believe in God, believe also in Me. In My Father's house are many dwelling places; if it were not so, I would have told you; for I go to prepare a place for you" (Jn. 14:1~2). Now you know why Jesus told His disciples not to be worried about death. Please bring your tears and fears to Jesus Christ. Our loving Jesus will give you the peace that passes all understanding. Please don't delay one more day to trust Christ as your Savior. Right now can be your day of salvation. "These things I have written to you who believe in the name of the Son of God, so that you may know that you have eternal life" (1 Jn. 5:13). Amen. 

# 영원한 생명

<sup>(1)</sup>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sup>(2)</sup>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sup>(3)</sup>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요한일서 5:11~13)



김성판 목사

**우**리는 두 세계를 살고 있습니다. 한 세계는 유한하고 또 다른 세계는 영원합니다. 유한한 세계는 매일 생명과 죽음의 문제로 가득합니다. 매일 몇 초 간격으로 누군가가 태어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죽습니다. 이 유한한 삶의 영역은 많은 병원과 묘지입니다. 이 세상의 대부분의 역사는 잘 분석되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시대를 살았던 역사가들, 철학자들, 의학자들은 죽음을 막기 위하여 성과 없는 연구와 시도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이 문제를 명료하게 해결해 줍니다. 성경은 영원한 생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합니다.

## 왜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가

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필요할까요? 이 땅에서의 삶은 짧습니다. 모세는 자신의 기도를 통해서 인생의 짧음을 정의했습니다. "우리의 연수가 칠십이요 강건하면 팔십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시 90:10). 예수님의 형제인 야고보도 설명합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나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약 4:14). 모든 새로운 의학 기술의 전문가들조차도 생명을 아주 조금 연장할 수 있을 뿐 죽음의 문제를 여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합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요일 5:11). 영생의 약속은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밝은 빛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지금 우리의 삶이 단지 영원을 위한 서막이라고 말합니다. 이 놀라운 소식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에 울부짖는 사람들의 눈물을 멈추도록 도와줍니다. 천국에서, 여러분은 슬퍼하는 사람을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또한 병원이나 묘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천국은 영원토록 완전하기 때문입니다.

## 어떻게 영원한 생명을 얻는가

어떻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선물을 받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자신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사탄의 함정입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영원한 생명을 획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선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영생은 거저 받는 선물입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만약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다면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슬픔에 처한 가족이 구원받고 죽은 사랑하는 자에 대하여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위로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요 14:27). 바울도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나의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고후 5:8)고 증언했습니다. 여러분은 영생의 이 놀라운 선물을 받으셨습니까?

## 언제 영원한 생명은 시작되는가

언제 영원한 생명은 시작될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할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요일 5:12). 이 세상에서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가게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아주 명료하게 밝혀주셨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요 3:36). 영원한 생명은 예수님을 믿지마자 곧바로 소유하게 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진노는 지금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에게 남습니다. 믿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믿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위대한 사람인 것과 자신들의 지혜를 사람들에게 보여 주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위대함은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할 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해야만 합니다. 제 아무리 애쓰고 선한 일을 할지라도, 그 어떤 공로로도 영원한 생명을 얻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 자가 될 때 영원한 생명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은 평화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부우하고 강하든지, 가난하고 약하든지, 심지어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핵심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요 14:1~2)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들에게 죽음에 관해 근심하지 말라고 하신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제발 여러분의 슬픔과 두려움을 예수 그리스도께 맡기십시오. 사랑의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모두에게 세상을 줄 수 없는 평화를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주로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을 이제 더 이상 지체하지 마십시오. 바로 지금이 여러분이 구원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요일 5:13). 아멘. ■

## 십자가 복음

##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복음 16:24)



예수님은 능력 있는 말씀과 행하신 기적으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는지 물으셨고, 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질문하셨다. 이 질문에 베드로는 참된 신앙과 백을 하였다(마 16:16). 이와 같이 사역의 정점에서 예수님은 자신의 고난과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뒤 참 제자의 길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마 16:24). 이 말씀 안에 예수님의 제자의 모든 것이 들어있다.

### ● 참 제자는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자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충성한다. 이 충성은 사랑에 기인한다. 참된 사랑이 없다면, 참된 충성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성경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반복해서 강조하였다(마 19:19, 22:39 ; 막 12:31 ; 눅 10:27).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롬 13:10)는 말씀대로 사랑은 참 제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신의 제자에게 사랑을 요구하셨다. 그러나 우리는 어떠한가? 인간에게는 스스로 거부할 수 없는 3가지 특성이 있다. 자신, 가족, 소유가 바로 그것이다. 인간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가족을 돌보고, 자신이 소유한 유·무형의 것들을 분능적으로 사랑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버리지 않으면 충성할 수 없고, 참 제자가 되지 못함을 확실하게 말씀하셨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26,33). 자신, 가족, 소유 때문에 우리는 삶에서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한 채 살아가게 된다. 우리에게 진심으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하고 충성하는 제자의 삶이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물(엡 2:9~10)을 받은 죄인들이 아닌가?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거하기를 원하신다(골 2:9). 그런데 우리는 죄의 본성에 따라 매번 우리 안에 죄를 쌓으려고 한다(롬 7:17). 예수님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면 나의 모든 것을 버리는 참된 충성의 따름이 있어야 한다(눅 18:22). 우선순위는 오직 주님이어야 한다(마 6:33).

### ● 십자가를 지는 것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는 십자가를 진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다. 예수님이 가신 길은 고난과 죽음의 길이었다(마 16:21). 제자가 가야 할 길에도 고난과 죽음이 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십자가 보혈의 은혜다. 십자가를 지기 위한 최선, 최고의 대답은 십자가뿐이다(마 16:24).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실을 그 누구도 부인하거나 핑계하지 못하도록 단순 명료하게 밝히셨다.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막 8:34). 누가복음은 십자가를 지며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을 '날마다' 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눅 9:23). 십자가를 질 때 예수님은 우리 안에 사시며, 날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알세우며 자신과 가족 그리고 소유를 위해 살지 말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어야 한다(요 3:16).

### ● 그리스도의 제자는 균형된 삶이 있다

예수님의 제자는 그리스도께만 속해 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 아직도 자아가 살아 있고, 가족이 소중하며, 내가 노력해서 얻은 소유들이 내 안에 살아 있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눅 14:33).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께 충성하며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는 균형된 삶을 살 수 있다(마 5:13~14). 이 균형은 인간에 의해 조율된 것이 아닌 순전히 보혈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의식을 넘어 무의식 속에서도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믿음의 삶은 십자가를 통해서만 가능한 은총의 역사다. 매순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십자가를 붙들자. "지금 내 기쁨은 오직 예수. 내 진정 소원은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아멘.

## 메시아의 죽음 63

## 예수님의 고민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은 인간적으로 고민하시는 예수님의 측면을 기록하였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시며 슬퍼하시라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막 14:33~34). 이에 반해 누가복음은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측면을 묘사하였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땀방울 같이 되더라"(눅 22:44). 그러나 마태·마가·누가복음이 공통적으로 밝히는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의 기도의 결론은 이것이다.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니"(눅 22:42 cf. 마 26:42, 막 14:36). 예수님의 고민은 단순히 앞으로 당할 일에 대한 걱정이나 두려움의 표현이 아니다. 경기를 앞둔 운동선수의 긴장과 경기에 집중하기 위한 마음가짐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다. 예수님은 이제 곧 다칠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이미 잘 알고 계셨다(눅 13:31, 33, 21:15, 28).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의 기도는, 근심과 피곤에 지쳐 참된 제자들과 차별된, 즉 구원을 위한 마지막 사역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앞둔 마지막 준비기였던 것이다.

우리는 겟세마네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 전도자들의 태도를 알 수 있다. 이 태도에 대해서 바울은 이렇게 가르쳤다.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살전 2:2).

이 말씀에서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고난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확장되는 하나님의 나라이다. 이것은 기독교의 신비다. 이것을 세상의 가치에 맞추려고 할 때 또 하나의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고난은 싸움의 것이 아닌 썩지 아니할 승리의 관이며 영원한 생명이니(고전 9:25). 이 여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이다. 믿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며, 믿음의 내용은 회개하는 것과 자존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은 돈과 명예, 권력이 동반되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딤후 6:12 ; 딤후 4:7).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눅 22:53).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 올 어둠의 권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할 회개와 믿음이다. 믿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며, 믿음의 내용은 회개하는 것과 자존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은 돈과 명예, 권력이 동반되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딤후 6:12 ; 딤후 4:7).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을 때에 내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 때요 어둠의 권세로다 하시더라"(눅 22:53). 겟세마네에서의 예수님은 앞으로 다가 올 어둠의 권세를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할 회개와 믿음이다. 믿음의 중심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으며, 믿음의 내용은 회개하는 것과 자존심을 버리고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믿음을 통해서 얻는 것은 돈과 명예, 권력이 동반되는 성공적인 삶이 아니라 영생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된다(딤후 6:12 ; 딤후 4:7).

"자비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눅 22:20). 따라서 우리의 할 일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이제부터 자느나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눅 22:46).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막 14:38 ; 마 26:41)는 말씀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뿐이다. 더 이상 주님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지 말자(눅 12:50). 편하고 쉬운 방법은 분명, 세속에 물든 네 방법이다. 주님의 방법은 십자가다. 오직 오직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자. "보혈의 공로 힘입어 교만한 맘을 버리네." 아멘.

# 전도와 선교는 삶이다!

전도는 특정한 날에 하는 행사가 아닙니다  
 선교는 특정한 지역에 가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 즉 복음 전파는 우리의 삶이어야 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마 5:16)  
 2011년에도 한 영혼을 향한 믿음이 실천을 기대합니다

## 총력교회주변전도

교회의 이웃들에게 지속적으로  
 복음을 전파합니다

여전도회 매월 둘째 주일 후 수요1부예배 후  
 남전도회 매월 둘째 주일 후 토요일 오후 2시

## 한 집사님의 전도로

작렬하는 태양 아래 선명역 주변으로 전도하러 가는 길. 떠나기 전 간절히 주님께 기도한 후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라고 환한 얼굴로 전도지를 나눠주며 복음을 전했다. 무표정한 얼굴로 반응없이 바삐 걸어가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면 얼마나 행복하고 좋은데 모르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뿐이다. 그 순간 주님을 물렸을 때 내 모습이 떠올랐다.

사람에게 집착하고 시기, 질투, 원망, 무관심, 열등 의식, 외로움으로 잠자리에 들 때면 아침에 눈 뜨지 않기를 바랐던 적도 있었다. 그러던 중 한 집사님의 전도로 교회에 오게 되었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다. 주님이 '이제 왔느냐, 잘 왔다' 하시는 것만 같았다.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서 모진 수모와 고통을 당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 회개와 감사함으로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리고 주님은 나를 변화시켜 주셨다.

찬양의 한 소절 한 소절이 내 마음을 표현해 주었고 주님의 말씀은 숨이쉴보다 더 단 생명의 말씀이 되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관용하며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몸과 마음이 깃털처럼 가벼워졌다. 이제는 만나는 친척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나와 같이 예수님 믿기를 청하게 되었다. 그 은혜에 이끌려 오늘날에 변함없이 교회와 교구 주변으로 주의 복음 들고 나아간다. 변함없이 내 삶에서 주의 향기가 나게 하시며 자신을 부인하도록 구하여 세상 것을 내려놓고 주의 나라를 소망하며 오직 남은 인생이 영혼 구원의 도구로 쓰여지기를 간구한다.

김남은(집사, 19교구)

## 해외 단기선교

세계복음화위원회, 조성의 훈련과정을 이수한  
 모든 성도가 참여 가능합니다

C.M.T.C.(충천선교훈련과정)

시 간

18:15~18:25  
 18:25~19:15  
 19:15~19:40

강 의

오리엔테이션  
 주제강의(영적지혜와 선교)  
 2011년도 선교정책

## 처음 다녔던 선교

선교 사역을 회상하면 초롱초롱한 그곳 사람들의 눈망울이 가장 먼저 떠오른다. 처음 다녔던 선교! 설렘과 두려움으로 가득했다. 사역 중에 이슬람교를 믿는 가정에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우리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있었다. 그 가정은 전에는 주님을 믿는 가정이었는데 강제로 이슬람교인이 되었다고 하면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고백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다고 전하며 여인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여인의 크고 맑은 눈에서 옥구슬 같은 눈물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그 여인의 마음 깊은 곳에 주님께서 임재하고 계시는 길이 느껴졌다. 우리가 복음을 다 전하고 나올 때 그 여인은 무척 아쉬워하며 내 손을 꼭 잡아주고 안아주면서 내 양 볼에 뽀뽀까지 해 주었다. 그녀의 눈물 맺힌 눈망울이 아직도 눈에 아른거린다. 그 여인의 눈물을 보면서 나는 내 믿음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모른다.

선교는 믿음 좋은 권사님이나 장로님 같은 분만 가는 거라는 나의 어리석은 생각을 바꿀놓으셨다. 선교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면 누구나 다 해야 하는 것이다.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하면 자기의 현령에 따라 주변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하고 기도로 또는 물질로 후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을 깊이 깨닫게 되었다. 기도로 동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부족한 이 죄인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신 주님께 깊은 감사사를 드린다.

이 전(집사, 22교구)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4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1월 25일(화) ~ 2월 1일(화) | 고등부 1팀     | 김영환 |
| 1월 25일(화) ~ 2월 1일(화) | 고등부 2팀     | 김봉화 |
| 1월 28일(금) ~ 2월 5일(토) | 중등부 1팀     | 한준봉 |
| 1월 28일(금) ~ 2월 5일(토) | 시영·청년부 연맹팀 | 박민호 |

## 현재 사역 중인 선교팀 (2개 팀)

| 기 간                   | 팀       | 팀 장 |
|-----------------------|---------|-----|
| 1월 19일(수) ~ 1월 28일(금) | 2교구 1팀  | 홍순길 |
| 1월 21일(금) ~ 1월 29일(토) | 16교구 1팀 | 문연식 |

## 중증부에서 고통부로

환신을 갖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종교와 3년 동안 제가 침침 차라고 있음을 느끼면서 또 세상에 대해

조급씩 눈을 뜨면서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미래에 대해 두려워하여 회개자 하는 무언가에 몰가다시피 살았습니다. 끝없이 되풀이되는 밤과 아침 속에서 불확실한 시간과 마음의 혼란 속에서 항상 부족하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저를 누구보다 먼저 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란을 때마다 그분께서 깨워 놓으신 저의 미래를 보여 주셨습니다. 눈에 확히 보이는 것은 아 없었지만 어느 날부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나를 위해 길을 열어 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처음 하나님께서 제가 주신 달란트가 무엇이고 그 달란트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써야겠다는 마음으로 생겼습니다. 중증부 생활을 통해 그 환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 혼자만의 기도보다 모두의 기도에 주님이 더 기뻐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제게 힘든 일이 생길 때마다 중증부 선생님과 부모님, 주위 사람들을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맺어 주신 인연들로 도움과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종교와 3년을 기도와 간구로 보냈습니다. 무작정 매달렸습니다. 저의 기도를 들어 주셔서 당신의 은혜를 보게 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하루가 고백의 시작이었고, 고백의 끝이었습니다. 그날 기도를 하면 눈물부터 났습니다. 힘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 먼저 모든게 든든해졌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음을 고백할 때 그분은 기도에 응답해 주셨습니다. 눈물은 환이 생겼다. 눈물을 흘리며 고백할 때 비로소 투명해진 기쁨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잔잔하게 되돌아가 거장과 소름을 아껴낼 수 있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들은 아직도 잔잔한 간절한 마음과 진실된 기도가 세상을 이긴다는 경험을 통한 깨달음은 제가 앞으로 배워야 할 모든 것이 가장 처음임을 알았습니다.

올려서 몇 번이나 되새긴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저를 아시고 알고으로도 그대신 것이라는, 하나님의 자녀로 언제나 좋은 길로 지라게 할 것이라는 환신에 찬 장면. 한때는 문득 하나님께서 저를 위해 예비하신 미래를 떠올리면서 이제껏 믿음으로 기도해온 빛나는 시간과 결점과 지금의 저를 떠올리며는 생각을 합니다. 예전보다 더 따뜻하고 통절한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정말 간절히 바라고 할 때 그것을 찾는 저에게 약속을 하시고 들어 주십니다. 많은 일들과 축복의 역사 속에 보낸 시간을 매진한 뒤에, 중증부에서의 마지막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더 은혜로운 겨울이 될 것 같다는 기쁨 좋은 예감에 시작됩니다.

김영현(고등부)

## 남편에게 주신 새 생명

작년 10월 말, 남편이 119

구급차로 응급실에 실려 왔습

니다. 상태가 위급하여 심부름을 모두 데리고 빨리 병원으로 오라는 간박한 말에 다리가 굳을 정도로 놀랐습니다. 학교로 가서 아들을 데리고 응급실에 도착해 보니 남편은 의식불명으로 인공호흡기를 단 채 숨을 거쁘게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은 원인은 잘 모르겠지만 남편이 고열과 오한으로 쓰러져 다발성 장기부전, 패혈증, 간농양으로 위환하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남편이 구원기도를 받아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이 들어 목사님께 급하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 의식이 돌아왔지만 남편은 너무나 괴로워했습니다. 목사님께서 오셔서 남편을 위해 구원기도를 해 주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했습니다. 나는 더욱 주님께 매달렸습니다. 그러나 투석도 하고 이뇨제도 투약했지만, 남편의 상태는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나는 기도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응급실 복도 바깥에 쏙고 앉아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첫 면회시간에 남편은 인공호흡기를 뗀 의식이 확실한 있는 상태에 매우 긴급하고 간절한 말로 입술을 열며 '여기 있으면 죽으니 빨리 집 근처 병원으로 옮겨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할 바를 몰라'라는 말을 몰라 달라고 몸부림쳤습니다. 병원 남편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 면회 시간에 갔을 때 인공호흡기를 부착한 남편은 자꾸 무언가를 쓰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글자를 잘 알아볼 수 없어 호흡기를 떼고 나면 옮겨보겠다고 하자 아서 옮기라는 것 같았습니다. 치료 중 안 좋은 사건도 있고 점점 상태가 나빠져 심장마비로 죽을 수도 있다는 의사의 말에 언니와 저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위환을 무릅쓰고라도 빨리 한자가 가고 싶어 하는 병원으로 옮기라는 믿음의 사귀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주님의 치밀하신 계획과 인도하심을 따라 남편은 점차 회복되었습니다. 드디어 남편을 약한 사탄 마귀로부터 건져 올려 주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주님은 남편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습니다.

남편이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돌아와 다시 새 생명을 찾고 거듭나게 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가족과 함께 주일마다 기쁨으로 예배드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중환자실에서 남편을 통해 인간의 능력, 한계, 삶, 행위들이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사소한 것이며 부질없는 것인지 다시 한 번 절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된 행복이요, 참 기쁨입니다. 중환자실에서 연한 인간들이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서 헤매고 있는 것을 보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신묘 막측하심을 느낍니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남은 귀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박 정(집사, 7교구)

## 너무나도 교만하고 분주한 모습

자녀는 나의 삶을 돌봐줘도 나와 함께 거서서 너무도 진한 호수와 같이 풍파 없는 삶을 인도하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믿음의 가정에서 형제들과 교회 의 뜨거워서 자라게 하여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순간마다 역사하셔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깊은 사랑. 그 사랑에 얼마나 울게 하시고 또 눈물을 닦아 주신 주님이신지 모른다. 하지만 내 마음에는 죄악에 죽을 영혼을 구원하시러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며 처절하게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좌악 된 내 모습을 회개하며 나를 영양의 자리로 이끌고자 내게 하리신 십자가에 감사함으로 나이가기보다는 율법의 그늘 아래 내 의와 행위로, 세상을 향한 허영과 욕심으로 아브라함과 요셉의 축복만을 바라고, 내게 하리신 모든 것이 내 소유인 양 착각하며 걸사림만 바라보면 너무나도 교만하고 분주한 모습이 있음을 고백한다.

그러나 이런 모습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나를 기쁘리엘 찬양대로 부르셔서 찬양의 도구로 예배의 수종을 들게 하시며, 찬양 가운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다. 주의 종을 통해 선포되시는 말씀 가운데 베드로의 교만한 믿음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이루시는 주님의 도구됨과 천국 시민권자로서 두 세계를 살고 있음과 영적으로 무지한 나를 위해 십자가 위에서 피를 흘리며 간구하시는 주님을 알게 하셨다. 순간순간 생각하고 바라보는 것이요 행하는 것이 죄악뿐인 사악한 내 속사람을 보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하시며, 말씀을 알게 하시고, 은혜받은 찬송을 암송하게 하여서 길을 가는 짐을 저든 내 안에 늘 찬양의 울림 가운데 세상의 생각들을 물리치고 주님 안에서 율법보다 소망 가운데 평안의 길로 인도하시며 빛의 자녀로서 한없는 지극심과 자족함과 자유함을 하리신다.

눈물과 소고와 한숨뿐인 어찌할 수 없는 죄악의 짐들로 너무도 곤고하여 실 곁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나의 무거운 짐 주님께 맡기고 항상 기뻐하고 기도 하고, 감사하여 주님이 계신 내 분향집을 행하 여한 다는 여행 오라 하신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이었어요? 미련 막대기보다 못하고, 혹은 불면 날아가버리는 먼지보다 못해요. 오늘도 또다시 무인 줄에서 세상의 모진 바람 몰려쳐도 떨어지지 않고, 더욱 십자가의 주님을 찬양하는 아주 작은 일사기 하나 되어 이세로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찬양의 도구가 되어 살아가길 원해요. 그리고 찬란한 새벽 그 문 앞에서 사랑하는 모든 얼굴들이 다시 만나길 기도해요.'

백문(집사, 13교구)

## 나의 첫 번째 성찬식



기도할 때마다, 아니 솔직하게 표현하자면 항상 늘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지만 형식적인 뿐 정말 말처럼 감사하다는 것을 느끼지 못했다. 그런 기도를 일상적으로 하며 지내다가 중등부에 들어와서 만 14세가 되어 입교(유아세례)를 받은 자는 세례 대신에 입교의 절차를 거친다)를 받게 되었다. 그리고 2011년 1월 23일 성찬주일에 처음으로 성찬식에 참여하게 되었다. 굉장히 설레기도 했지만 예수님을 알고 성찬식을 하기 전 지금까지 지은 죄들을 생각하면 왠지 예수님께 죄송하기도 했고, 이런 죄인을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 주신 데 대해 더욱더 감사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첫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많은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더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이번 성찬식을 통해 주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게 된 것 같아 더욱 기뻐다.

성찬식을 대할 때 이렇게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이때까지 지은 죄가 생각나서 죄송한 마음이 계속 들어 회개하고 나서는 같은 죄를 짓지 않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였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또 언제나 사랑해 주신다는 것에 감사하게 되었고 무비보셋이 다윗 왕의 식탁에 초대받았던 것처럼, 또 롯이 보아스의 식탁에 초대받았던 것처럼 언제나 주님의 식탁에 초대받아서 기쁨과 감사함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느낄 수 있게 되면 좋겠다.

최예진(중등부)

##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주일교회의  
한 가족이 되기를  
원하시는 분은  
본당 203호  
새가족 등록실로  
오시기 바랍니다.

| 번호   | 성명   | 교육과정 | 교구 | 인도자 |
|------|------|------|----|-----|
| 1566 | 김현주  | 대학부  | 21 | 정광성 |
| 1567 | 최성하  | 양육반  | 8  | 김윤창 |
| 1568 | 류준현  | 양육반  | 6  | 이재현 |
| 1569 | 안홍선  | 양육반  | 16 | 김철환 |
| 1570 | 손화정  | 양육반  | 3  | 오지은 |
| 1571 | 이정태  | 양육반  | 21 | 박철민 |
| 1572 | 이진아  | 양육반  | 3  | 오지은 |
| 1577 | 박민우  | 양육반  | 19 | 홍미화 |
| 1578 | 최동민  | 양육반  | 10 | 홍미화 |
| 1579 | KUJI | 양육반  | 16 | 홍미화 |
| 1580 | 김태수  | 양육반  | 3  | 방영미 |
| 1581 | 홍민기  | 양육반  | 2  | 최영민 |
| 1582 | 김정원  | 양육반  | 3  | 박석재 |
| 1583 | 정윤진  | 양육반  | 22 | 정영민 |
| 1584 | 박경민  | 양육반  | 11 | 오혜숙 |
| 1585 | 황준호  | 양육반  | 6  | 김규석 |
| 1586 | 박민미  | 양육반  | 1  | 이민주 |

## 고등부 겨울수련회



## 회개

'난 기도하고 있다'라는 생각에만 꼭 빠져서 기도할 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 자신조차 모른다는 것을 이번 수련회를 통해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수련회를 이틀 동안 참석했습니다. 학교에서의 개인 사정으로 인해 월요일, 화요일을 방학으로 차를 타고 수련회에 출퇴근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예배는 부흥회뿐이었습니다.

마지막 부흥회가 끝나고 차를 타고 돌아오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무엇을 위해 기도했나?', '그들의 기도를 듣고 있을 때와 내가 말하는 기도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왜 나의 기도에는 허전함만이 느껴질까?' 제가 다니면서 같이 기도한 후배들, 그리고 친구들의 기도는 대부분 회개에 관한 것이었고, 다른 몇 가지는 주님께 나이가기 위한 소망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제가 평소 소망하는 기도와 별반 다를 것이 없었지만 함께 기도하면서 저는 그들이 주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음을 느꼈고 질로 눈물이 났습니다.

시간이 지난 후, 저는 제가 기도할 때 형식만 차리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물론, 수련회를 다녀오기 전에도 진심으로 기도하고 있었지만 은연중에 '주님, 저 기도하고 있어요. 보이시죠?' 하는 주님께 입증하고 싶은 오만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부흥회가 끝나고 나서 제가 아내는 친구가 저에게 한 말을 떠올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예수님이 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최우선이 되어야 해"라는, 처음엔 친구의 말을 섭섭하게 생각했지만 본래 그런 제 모습을 제가 부정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금에서야 깨달은 제 모습에 부끄러워 고개를 숙이려 하다가 예수님이 너무 오랫동안 걱정하실까봐 이렇게 엎드려 회개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주님."

김지연(고등부)

## 평안

고등부 학생회의 친교시간과 조별 성경공부, 부흥회를 통해 좋은 친교의 시간과 말씀을 새길 수 있었고, 기도를 통해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다. 길고도 짧은 2박 3일의 기간 동안 주님께서 은혜로 가득 채워 주셨던 수련회였다. 고등부 겨울수련회에서 가장 기억에 남았던 일은 수련회 둘째날, 부흥회 시간이었다.

부흥회 시간에 강단에 올라가 엎드려 주님께 기도를 드리고 있었지만 내 마음은 첫째날 부흥회와 달리 공허함으로 가득했다. 두 손을 모으고 입으로 부르짖으며 주님을 갈망하고 있었어도 내 중심에 주님께서 오시지 않은 것만 같았다. 그렇게 계속 부르짖던 중에 주님께서는 한 친구를 떠올리게 해 주셨다. 그 친구는 중등부 시절에 사이도 안 좋고 이유 없이 미운만 가득했던 친구였다. '그 옛날의 죄 덩어리가 내 마음의 문을 막고 주님께 향한 발걸음을 가로막았던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들었고, 그 친구에게 달려가 껴안고 울며 회개하였다. 몸은 계속 울부짖고 눈물은 실재 없이 흘러내렸지만 주님께서 내 마음에 참 평안을 주시고 용서해 주심을 느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딤후 3:16~17). 이번 수련회에서 가장 은혜받은 말씀이었다. 때때로 나는 성경을 내 자신의 번민이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한, 교훈을 찾기 위한 세상적인 목적을 가지고 대했다. 하지만 주님은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하며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살게 해 주시는 복음임을 깨닫게 해 주셨다. 오직 성경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고3 생활 가운데 모든 것을 온전히 주님께만 내어 맡기길 기도드린다.

정현종(고등부)



